

행복한 책읽기

정진국의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생각의 나무>

바야흐로 지방 축제의 계절이다. 우리네 지방 축제를 보면 지역 주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제가 좀 성공한다면 낡고 오래된 건물을 미련 없이 부수고 콘크리트 건물부터 세운다. 거기에 '~박물관'이란 이름을 붙이고 주변에는 놀이공원을 만든다. 간판만 다를 뿐 맘상 가보면 '거기서 거기'에서 그 지방만의 독특한 개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저자 정진국은 '책 마을' 스물 네 곳을 탐사한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그곳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책 문화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짜적한다.

첫째, 집과 상관없이 책값을 쭉 수에 따라 책정한다. 둘째, 상업주의에 물든 나머지 책 내용을 고려 치 않은 알록달록 책 표지로 무게감을 떨어뜨린다. 셋째, 동네 서점

이', 세상에서 가장 운치 있는 책방 거리인 노르웨이의 '쇠틀라네이 트레이어스터란트'에 매료된다.

그 중 프랑스의 '로렌의 풀트누아 라 주트'는 암권이다. '18세기 풍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책'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곳은 농부들과 책 파는 사람, 종이 만드는 사람이 어울려 산다.

이런 참신한 발상을 한 사람은 존경받는 정치인, 필립 세갱이다. 그는 농촌 생활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다. 주민을 우선시하고 관광객 때문에 발생하게 될 부작용을 차단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만간 프랑스의 로렌을 모델로 항

오래돼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곳

에서 팔고 있는 것은 주로 참고서 위주다. 넷째, 번역도가 2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덧붙여 교육 효과를 내세우 요란한 '기능주의적' 동화 책은 쏟아져 나오는 반면 '반성적'인 것은 거의 번역되지 않는다.

다섯째, 우수한 한글을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하다. 일본의 참신한 디자인에 비해 한글디자인 개발은 더디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엘리트 문화와 또 다른 극단에 있는 대중문화만 득세하다 보니, 막상 전진하고 평범하며 있는 그 대로의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무시도 상당하다고 말한다.

잔잔한 일상에 책 문화를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스칸디나비아, 독일을 거쳐 영국과 아일랜드에 이르는 경로로 저자를 따라 가다보면 책 마을이라는 도농 문화를 최초로 도입해 성공시킨 영국의 '웨일스 헤이온 와

'본능을 자극하는 달콤하고 야만적인 젊은 새가 가장 깊은 자연의 새라고 한다면, 책은 가장 해복은 문명의 새새를 풍긴다. 엄마 품에서 떨어져, 아니면 엄마 품에서도, 처음 책장을 넘길 때 고약하게 우리의 콧구멍을 파고들던 그 종이와 잉크 새새…….'라고 저자는 말한다.

엄마 품과 같은 자연에서 문명의 이기인 책을 읽는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